

2021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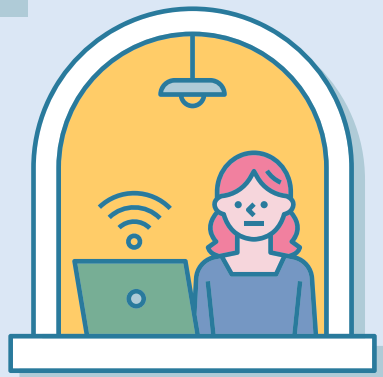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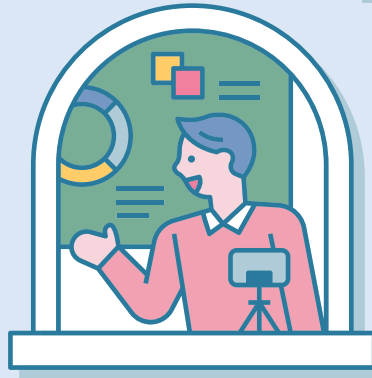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SU-대학혁신지원사업
2021 웹소식지 vol.2

contents



본 웹소식지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학생 홍보단인 'SU-PANEL'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 내용을 직접 구상 및 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작성자 : 남의정	2
2021 노원지역 4개 대학 연합 성과포럼 작성자 : 조윤아	6
메이커스페이스, SU-Maker 프로그램 작성자 : 조윤아	9
스미스교양주간 작성자 : 양은솔	11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 작성자 : 김예동	14
스미스탐방대 공모전 작성자 : 김예동	16
창업동아리 작성자 : 남의정	19
SU금연 프로그램 작성자 : 양은솔	22
대학혁신지원사업 경험 & SU-PANEL 활동 소감	24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궁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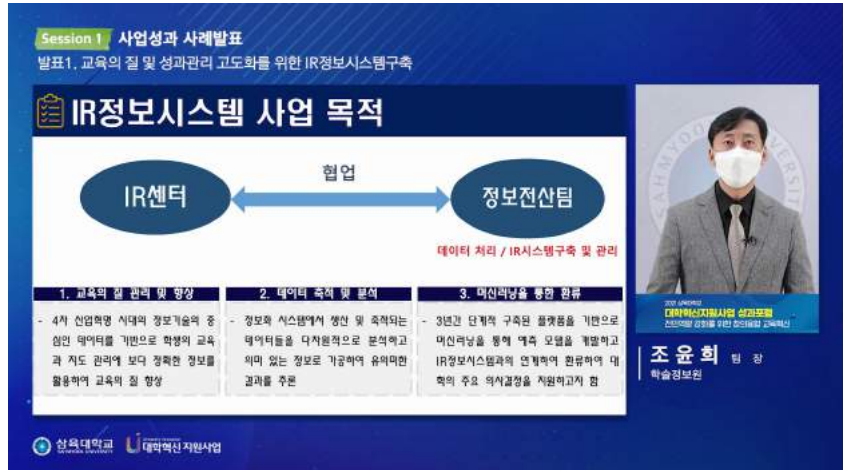
작성자 | 남의정

2021년 8월 26일 14시에 “**2021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이 개최되었다.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포럼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삼육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다. 포럼 주제는 ‘전인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 교육혁신’이다.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김재현 운영팀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태진 단장의 개회사와 김일목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과포럼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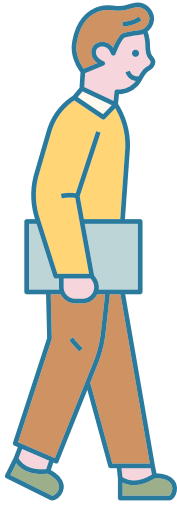


Session1: 사업성과 사례 발표

- ① 첫 번째로 학술정보원 조윤희 정보전산팀장의 '교육의 질 및 성과 관리 고도화를 위한 IR 정보 시스템 구축'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IR센터의 ■사업목적 ■추진내용 ■주요 실적 및 기대성과 ■향후 발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② 두 번째로 인성교육원의 김현호 팀장이 '회복되는 시간, HOPE CAMP'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HOPE CAMP에 대한 ■사업 목적 및 배경 ■사업 개요 ■사업 활동내용 ■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향후 발전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③ 세 번째로 교육혁신단 교수학습개발센터 김한주 연구원의 'SU-MVP 교수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수법아카데미'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교수법 아카데미의 ■사업 목적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 ■환류 및 성과 확산'으로 구성되었다.
- ④ 네 번째로 교육혁신단 비교과통합센터 김영상 팀장이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 플랫폼(SU-비교과 생태계) 구축 배경 및 목적 ■비교과통합시스템(SU-Plus) 구축 및 운영 ■비교과 모바일 홍보 시스템(SU-ePR) 구축 및 운영 ■비교과 포인트 운영시스템(SU-Pay) 구축 및 운영 ■주요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⑤ 마지막으로 학생상담센터 장성훈 전임상담사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생상담센터 소개 ■마음 건강지원 ■대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청방법 ■유관기관 ■우수 사례 ■나아갈 길'로 구성되었다.

Session2: 학생 경험 사례 발표

- ① 첫 번째로 약학과 나상은 학생의 '나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준 수토리(Sutory)'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갈피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청년들 ■우리대학 e-포트폴리오 시스템 '수토리' ■수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학생들 간 도움을 주고 받는 시스템 ■선배, 동기와의 끈끈한 우정 형성 ■미래를 향한 발견'으로 구성되었다.
- ② 두 번째로 일본어학과 양세은 학생의 '창업 오디션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창업오디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 및 계획(step1: 첫 공모전 부딪혀보자) ■창업오디션 내용 및 노력(step2: 봄이 옴, 그 가치를 인정받다) ■이를 통해 배운 점 및 보람(step3: 수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 ③ 세 번째로 상담심리학과 유영서 학생이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의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 경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참여 계기 ■역량 강화 활동 ■결과 및 느낀점'으로 구성되었다.
- ④ 마지막으로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혜수 학생이 'MVP+ 교육이 신입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첫 획의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주요 내용은 '■MVP+ 프로그램 기획 ■프로젝트 진행과정 ■프로젝트 결과와 그 이후'로 구성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발표자 학생 인터뷰

나상은 (약학과) '나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준 수토리' 발표자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21-1학기 때 운이 좋게도 교내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토리 학생경험 후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과포럼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우리대학 e-포트폴리오 시스템인 '수토리'를 통해 제가 한 경험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또 진로의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과거만 기억해두고 싶은 사람의 욕망 때문에, 성공한 사례만 모아두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실패 또한 철저히 분석해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저의 멘토의 말을 듣고 실패한 것들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작성해보곤 했습니다. 수토리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공공부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활동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으로서 제가 학생 후기 공모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봤을 때 저의 평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 썼습니다. 내용을 비롯해 전달 속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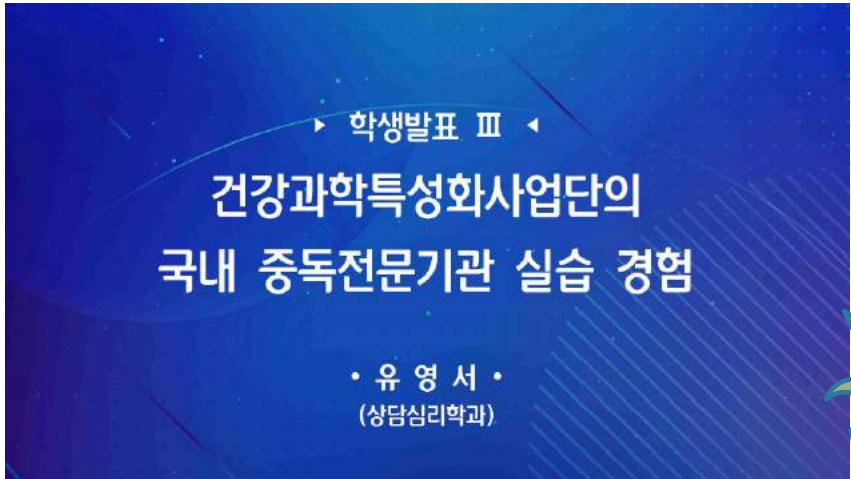
조절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평소, 말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전달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타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타인이 저의 발표를 참고한다면, 가능한 한 저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걸리긴 했지만, 저 또한 자아성찰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발표자로서 성과포럼에 참여한 전체적인 소감 부탁드립니다.

큰 행사에서 삼육대 학생들을 대표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성과포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고 좋은 성과를 내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영서 (상담심리학과)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의 국내 중독전문기관 실습 경험' 발표자

●● 성과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사회에 나갈 여러 준비를 하면서 학교생활의 마무리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나쯤 해보고 싶었어요. 이때 마침 해보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저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험에 대한 저의 발표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길 바랐기에 더욱 흔쾌히 참여했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2020년도 하계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부)에 실습을 다녀온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년도에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활이나 다양한 실습에 제한이 생겼는데 이때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던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죠.
실습 활동으로는 마퇴부의 전임 상담 선생님의 교육과 상담, 치료공동체로 실제로 재활 중인 분들과의 참여활동, 그 외 가족이나 미술치료 등의 참관과 참여, 직접 집단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습을 통해서 저의 관점이나 시야가 달라짐을 느꼈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실습 경험이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론적인 공부 외에 경험적인 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론적인 부분 외에 인격적, 경험적,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이 있을 때, 학생들이 지원하여 대학생 시절에 많은 것을 경험하길 바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 성과포럼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서서 발표를 해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실전으로 들어가니 말도 꼬이고 재촬영도 많이 했답니다! 촬영을 도와주시던 선생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발표자로서 성과포럼에 참여한 전체적인 소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배움의 자세로 참여했던 실습 경험이 이렇게 성과포럼의 발표까지 이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든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참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많은 학생들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끌어내는 혁신 교육, 노원지역 4개 대학 연합 성과 포럼

작성자 | 조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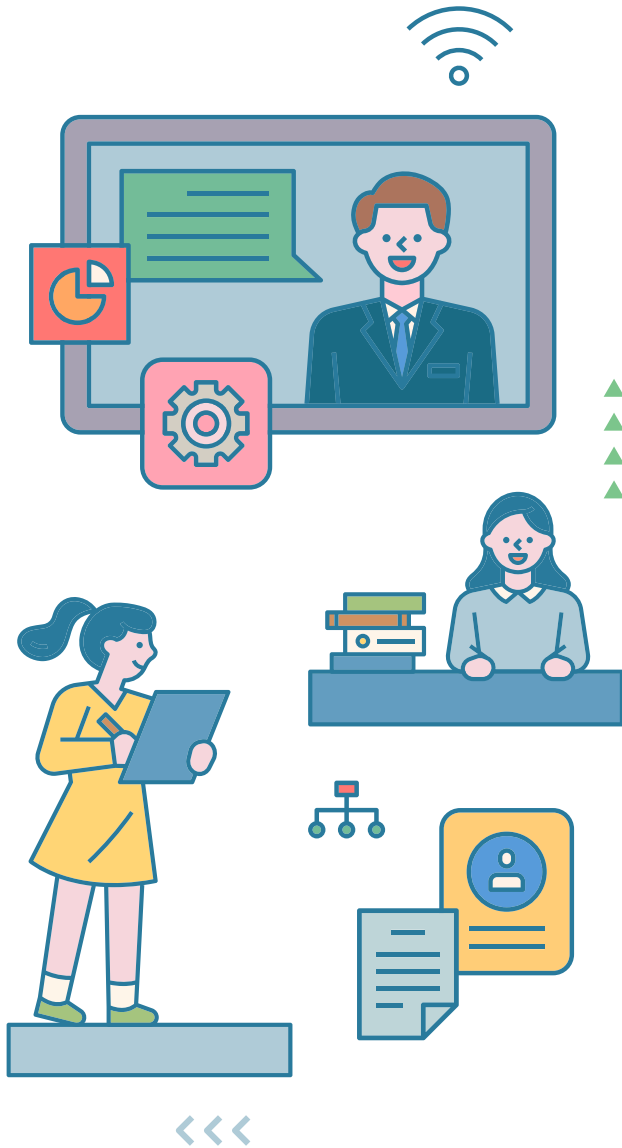
지난 10월 6일, 삼육대학교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본교를 포함하여
노원구 4개 대학(삼육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연합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혁신을 넘어 공유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각 대학을
대표하는 관련 사업 학생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대학들이 각자도생을 넘어 동반혁신 및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지닌 해당 포럼은, 각 학교에서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되새겼으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학생들의 열띤 발표였는데,
삼육대학교에서는 대표로 정혜수 학생이 "MVP+교육이 대학생생활에
안겨준 선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포럼 발표자 정혜수 학생, 포럼
참가자 여윤정 학생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본교의 많은
재학생들이 배움과 열정을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포럼 발표자 인터뷰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혜수)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혜수입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노원지역 4개 대학 연합 성과포럼에서 학생 사례 부분을 맡아 발표했습니다!



●● 포럼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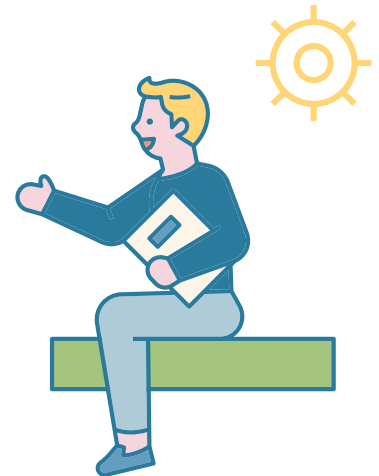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된 프로그램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내에서 여러 경험을 쌓았고 제가 사례 공모전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례 공모전에서의 입상 경험이 포럼 참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삼육대학교 학생 대표로 포럼에 참가하셨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이번 포럼이 지향하는 바와 제가 준비한 사례가 가지는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포럼에는 어떠한 주제로 참가하였으며, 해당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1학년 때 참여했던 MVP+2.0 활동을 주제로 참가했습니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돌아해보면 제 대학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 포럼에 참가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포럼이 많은 과정과 준비를 거쳐 진행된 큰 행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포럼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세계가 넓어진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넓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 발표 주제 외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진행한 사업(혹은 프로그램)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제가 팀장으로 속해있는 학술정보원 서포터즈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서포터즈에 오래 소속되어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저뿐만 아니라 삼육대학교의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여 도서관 이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포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나를 키워준 또 하나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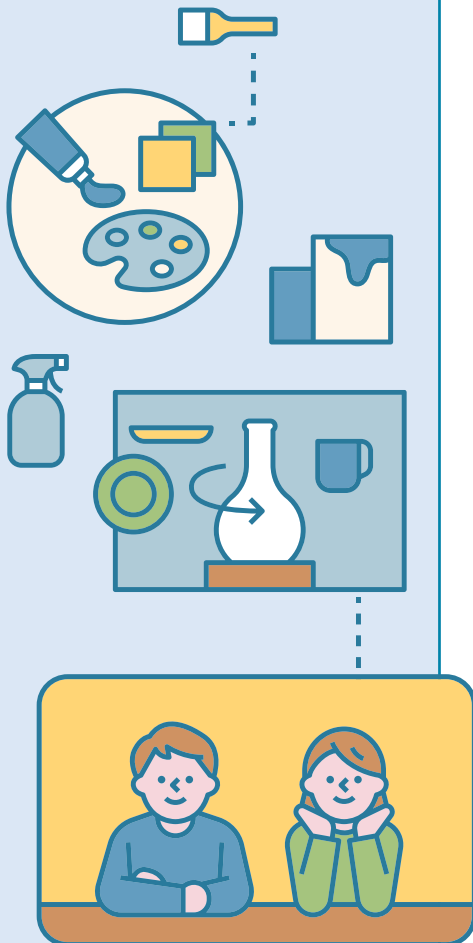
포럼 참가자 소감 (간호학과 여윤정)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 처음 참여해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첫 순서였던 기초강연을 통해서 외국대학의 프로그램, 커리큘럼 등 한국과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인상 깊게 들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속 도전하는 학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부문과 학생부문의 여러 발표를 듣고 많은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이 대학,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며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사회에 나누고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공간, 메이커스페이스와 SU-Maker 프로그램

작성자 | 조윤아

3D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등 요즘 가장 인기 있고 각광받고 있는 산업 장비들이 모두 완비되어있는 공간이 삼육대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교내 '메이커스페이스'는 해당 장비들을 활용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삼육대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공간을 운영해왔는데, 여러 해를 거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진정한 '혁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더하여, 교내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해당 공간을 개방하여 서울과 인근 경기도 지역의 대표 혁신 공간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SU-Maker 프로그램'은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창의형 ICT 특성화, 도시농업 특성화, 건강과학 특성화 등 3대 미래 인재형 특성화 교육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있다. 실제 2019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손으로 보는 졸업사진(홍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맹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해주는 경험을 갖기도 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전문 메이커'를 양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 더해진 목표이다.

재학생들에게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에 더 관심을 갖고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담당자 인터뷰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조재성입니다.

●● '메이커스페이스'와 'SU-Maker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우선, 메이커스페이스란 학생들이 원하는 사물이나 제품을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등의 다양한 장비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이용해 사물을 제작해보고 팀을 이루어 시제품 등을 만들 수 있는 창작공간이자 창업준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SU-Maker 프로그램은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메이커스페이스 및 창업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창업의 기틀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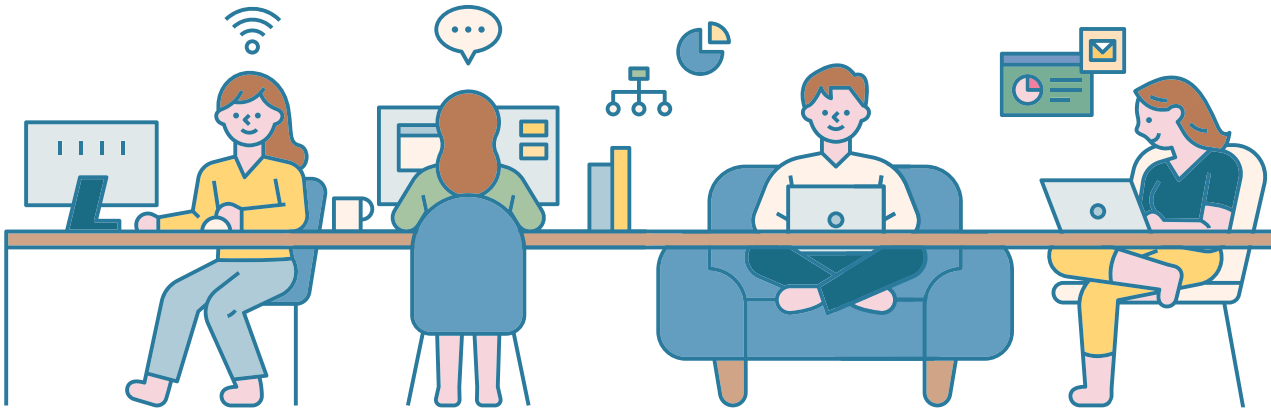
●● 그동안 여러 번의 SU-Maker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학생 참가자가 있나요? 있다면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2019년에 지역사회재능기부 활동으로 한빛명학교에 가서 해당 학교 졸업생들에게 흥상을 만들어준 프로그램과 참가 학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더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한명씩 3D스캐닝을 해서 재능을 습득한 후 직접 맹인 학생들의 얼굴을 3D설계 및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흥상에 대한 3D모델링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3D프린팅을 해서 뽑았으며, 다시 후가공 작업을 통해 흥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 과정과 노력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었기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메이커스페이스'와 'SU-Maker 프로그램'만이 갖는 장점 혹은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3D프린터만을 이용해 진행되는 타 학교들과 달리 삼육대학교만의 특색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삼육대학교의 3대 특성화 사업 중 도시농업특성화 메이커 프로그램인 식물메이커 프로그램(테라리움 만들기 등)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와 함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학생들이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늘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공간이 실제 사물이나 제품들을 만들어 보고 창업역량과 메이커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 어떠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공간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쉽게'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망설여지는 학생,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지 못한 학생,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 등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메이커스페이스!



2학기에는 융합정보교육 특강과 현장핵심역량 특강도 운영되었다.

융합정보교육 특강은 '정보와 가치의 미래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한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이다.

현장핵심역량 특강은 '국제 NGO 활동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에 희망을 전달해주는 비정부단체인 NGO의 역할과 특징, 사례 등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치있는 특강이다.

●● 스미스교양주간 특강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스미스교양주간 특강은 온라인 e-class에 탑재되어 있어 비교과통합시스템에서 사전 신청 후 기간 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스미스교양주간 독서감상문 공모전

지향하는 핵심 역량: '소통' 역량

●● 스미스교양주간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통해 독서를 하게 되다!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독서도 습관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책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독서만큼 교양을 쌓는데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독서감상문 공모전은 전 계열 학생의 교양 역량 제고 및 문학·역사·철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스미스교양주간 독서감상문 공모전에 참여하여 독서를 하며 지식을 함양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 독서감상문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일까?

삼육대학교에서는 매년 학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지정된 도서 목록을 중심으로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추천 도서목록 중 자신이 원하는 1권을 선택하여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다양한 교양 과목 수업의 독서 과제와도 연계되며, 매년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 학생 인터뷰: 1학기 수상자(최우수상) 김형중(경영정보학과)

●● 공모전에 참여한 책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 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우려는 주제가 핵심 주제이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정보의 오류'는 왜 생기는지 10가지 본능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책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좀 더 '사실 충실성'에 다가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 그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나쁘지 않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살면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해가 생겨 사실에서 벗어나 오류로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될 만큼 정보가 많지만 그만큼 무분별하게 정보가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분별하며 현대인들이 빠질 수 있는 10가지 본능을 설명해 주는 '팩트풀니스'는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독서감상문 공모전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서감상문 공모전의 좋은 점은 평소에 읽지 않던 책을 읽을 기회가 생기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거나 아예 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평소에 하지 않는 독서를 하거나 혹은 원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의 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게 되셨나요?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통해 배운 점은 기회는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육 도서 100선의 향기'라는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이번 공모전을 알게 되었고 참여하여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강의를 수강했다면 이번 공모전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소 학과 교수님들께서 관심이 없던 분야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저는 관심이 적던 독서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스미스인문주간 독서 감상문 공모전

선정된 지정도서 중 책을 읽고 도서의 주제, 내용 요약, 개인적인 경험, 독서후 변화 등을 독서감상문으로 제작하여 제출

비교과 홈페이지 <https://sur-plus.syu.ac.kr/>

공모자격 본교 재학생 (휴학생/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제외)	심사결과 2021. 7. 29 (목) 삼육대학교 스미스대학 홈페이지 게재
제출기간 2021. 3. 15(월) ~ 7. 18 (화) 기간연장!	대상내용 총 10명 (총 상금 300 만원) 대 상 (1명) 상금 및 상금 500,000원 최우수상 (2명) 상금 및 상금 400,000원 우 수 상 (3명) 상금 및 상금 300,000원 장 리 상 (4명) 상금 및 상금 200,000원
참수방법 비교과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후 직접 제출 (직접 제출시 파일명 예 '성명.학과.도서명'을 반드시 기재)	

문의 02) 3399-3383 | 스미스학부대학

2021-2

스미스인문주간 독서 감상문 공모전

- 대상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학부생 제외)
- 주제 주어진 도서목록 중 자신이 원하는 2권을 선정하여 독서감상문 제출
- 제출 기간 2021년 8월 27일(월) ~ 30일(목) 11시 까지(종료)
- 평가 방법 12월 31일(목) 이후 교수 (비교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
- 상금 내역
최우수상 1명(총 상금 500,000원)
우수상 2명(총 상금 400,000원)
우수상 3명(총 상금 300,000원)
장려상 4명(총 상금 200,000원)
* 수상금외에 도서, 기념품, 상장 수여
* 수상금외에 도서, 기념품, 상장 수여
* 수상금외에 도서, 기념품, 상장 수여

문의 02) 3399-3383 (내선 300번) | <https://sur-plus.syu.ac.kr/>

삼육대학교 | 스미스학부대학

'잇다'와 함께 직무이해 쌓기!

작성자 | 김예동

살아있는 직무경험이 궁금하다면?
진짜 현직자의 관점에서 핵심만
알려주는 맞춤형 클래스!
18개의 직무, 28개의 기업, 30명의
현직자가 함께하는 2021년도 '잇다'
직무 컨퍼런스!

제휴 대학의 재학생만이 참여 가능한 '잇다' 직무 컨퍼런스는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는 현직자의 직무취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취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총 15개의 직무 카테고리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클래스 별로 상세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멘토 정보와 참여자들의 후기를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만족도 있는 클래스가 될 것이다. 이번년도에 새롭게 바뀐 '잇다'의 직무 컨퍼런스는 총 5일간 30개의 클래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 담당자 인터뷰

●●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일자리본부 신수미입니다. 일자리본부의 취·창업 업무 중 주로 취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온라인 콘텐츠 '잇다'는 개별 멘토링이 특화된 업체로 소규모 집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전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기에 40명 정도의 소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직무와 컨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에 3~4개의 한정적인 클래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직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 좋았기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클래스의 수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더욱 많은 직군의 다양한 현직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잇다'와 함께 논의하여 현재의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클래스 수가 30개로 대폭 증가되었고, '잇다'와 제휴를 맺고 있는 타 대학과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입니다.

●● 학생들이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를 통해 무엇을 얻으리라 기대하나요?

먼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라이브 일정표

11/29(월)	11/30(화)	12/1(수)	12/2(목)	12/3(금)
19:00 - 21:00 (2시간)				
주인공질 살상자	스군살계 현대자동차	세이제인 현대자동차	이세진 현대자동차	정일(재)인리 구글
IT개발 카카오뱅크	온세(기)회 카카오모빌리티	홍Mi/CSR 현대자동차그룹	송형(재)용 CJ대한통문	한국(성)지 삼성전자
특계(재)우 (비)신(재)계(재)우	영인(영)인리 해피니스코퍼라	신사 대림제약	IT(재)우 두산(재)정(재)노(재)비전	서(비)스(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현대자동차	광고 S(비)제드	M(비) 올원소형	회(재)우 코오(재)인(비)스(비)토리	신사 S(비)클레오
디자인 Y(비)DUM Partners	서(비)스(기)회 크롬	공(사)로(기)회 한국(사)우(재)기(재)우(재)우	영인(영)일 한(비)비(비)스	현(재)기(회) 구(재)우(비)스
-	재(비)우(재) KT	(비)우(재) Grepp	현(재)사 특(비)제(비)인(비)우(비)비(비)스	공(사)로(기)회 한(비)우(재)비(비)안(비)발(비)공(사)
-	-	구(재)우(재) S(비)제드	-	-



채용 프로세스 혹은 진로의 방향성을 부여해주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다'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는 그 중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진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직무가 있는지 모르거나, 그 직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며, 취업에 대한 준비를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직자가 직접 들려주는 강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인사담당자의 특강이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면, 현직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필요한 경험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과 더불어 미리 사전질문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질 높은 답변을 통해 더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직무 컨퍼런스 참여 학생 후기

●●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동입니다.

●● 클래스 참여 계기, 참여 후기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작년에 처음 '있다'의 실시간 온라인 클래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현직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느낀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저녁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클래스였지만, 결론적으로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을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님께서 매우 유쾌하고 친근하게 강의를 진행해주셨고, 실시간 클래스인 만큼 참여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정보와는 다르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직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현직자가 되어 해당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현직자의 시점에서 전해주는 진솔한 피드백은 정곡을 찌르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실제 업무를 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취업을 준비하며 어떤 활동과 경험을 해보면 좋을지, 또한 취업준비를 하며 가져야 할 마인드는 무엇인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년도 직무 컨퍼런스는 다양한 직무를 가진 현직자분들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참여 학생들의 선택 폭이 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 클래스가 동시에 진행되어 한 가지 클래스만을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무의 현직자가 진행하는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해 하루 일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현직자와 밀도 있는 Q&A 시간까지!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되어 참여 학생들의 질문에 멘토들의 실시간 답변도 가능하다.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확대될 여지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꼭 한번 참여해보도록 하자. 또한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이후 수료증 및 마일리지도 부여된다고 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내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아서! 스미스 탐방대!

작성자 | 김예동

지역사회문화 체험과 이해, 전 계열
학생의 문화 현장 체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자!

스미스학부대학 주체로 운영된 2021학년도 스미스 탐방대 공모전은 삼육대학교 MVP 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 가운데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출품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까지 10팀을 선정하여 상금으로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지역을 여행하고 숨은 명소를 알리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스펙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유산 및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1일 체험 프로그램 코스 여행'을 개발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특별한 1일 체험 테마 여행을 기획하였기에 그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대상 '놀러오세요 지역탐방'



먼저 대상으로 선정된 '놀러오세요 지역탐방'팀. 서울 종로구로 이동하여 창덕궁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북촌한옥마을까지!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한 역사의 흔적을 살살이 파헤쳐주었다. 전통문화를 관람함과 동시에 종로의 밥집과 전통 찻집을 직접 방문해 경험해본 후 소개해주고 있다. '놀러오세요 지역탐방'팀은 당일 여행에 맞맞은 이동경로와 명소별 관람시간, 필요예산, 방문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여준다. 특히 팀만의 관람 팁을 공유하고, 추가로 방문하면 좋을 종로구의 다른 여러 문화 장소를 추천하고 있다.

'놀러오세요 지역탐방' 팀원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줄이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북촌한옥마을에는 오르막길이 많아 지치기도 했지만, 높은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런 힘들을 잊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한참동안 오른 뒤에 마셨던 차는 아주 상쾌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꾸는 재미가 탐방의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탐방 후의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던 문화유산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역사의 기록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 하루 정도 혼자서 여유를 느끼는 것도 좋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감상을 나누며 값진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최우수상 '전주로의 체험학습'



다음으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주로의 체험학습'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지키고 기억하자는 취지와 함께 한복과 한옥 문화를 알리고자 체험코스를 개발했다.

"아름다운 한복을 즐기면서 다양한 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만들 수 있고, SNS에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을 가지게끔 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손쉽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며 코스 개발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로의 체험학습'팀이 개인 SNS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한옥을 체험한 사진 등의 전주 여행기를 공유했을 때, 블로그는 126명, 인스타그램은 1078명에 도달하는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한복은 선의 흐름과 조화에서 옛 조상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찾아볼 수 있다. 입을 때에는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동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할 수 있다. 그 아름다운 선의 조화는 세계 어떤 나라의 고유한 의상과 비교해봐도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복을 체험한 후기를 말했다. '전주로의 체험학습'팀은 전주한옥마을에 방문하여 경기전과 전통성당 등의 명소 소개, 한국의 전통요리인 전주비빔밥과 떡갈비, 마지막으로 한옥 동락원에서의 하룻밤까지 생생히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였다.

스미스 탐방대 참여 학생 인터뷰

●●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스미스 탐방대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교내에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 스미스 탐방대 공모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직접 여행을 계획하여 탐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마침 주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전통문화와 관련지어 기획한 후 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스미스 탐방대 공모전을 준비하며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본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일상 속 무심히 지나치던 자연과 친구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며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다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풍경은 학교 캠퍼스, 혹은 등하곳길에 대중교통 안에서 보게 되는 바깥 풍경 정도였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종강 이후 마음에 여유가 생겨도 마음껏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구경했던 자연 풍경의 모습, 같이 공모전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큰 휴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 공모전을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혼자였다면 이런 추진력과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 공모전을 통해 상상력이 넓어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이상의 많은 지식을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현장 참여형의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공모전을 계기로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관심이 생겨 찾아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 지역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의 발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계획했던 것 중 절반 정도를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즉흥적으로 다른 것을 찾아 새롭게 결정했습니다. 특히 식당과 찻집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시 찾아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더 맛있는 음식이나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서 더 흥미롭게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했던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없기에 이에 따른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더욱 좋은 곳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몇 점인가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저는 5점 만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제를 선정하여 처음부터 모든 기획을 해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탐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 것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공모전이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기 아쉽고 많은 이들이 방문하길 원하는 스폿이 있다면, 국내 문화 체험 활동 '스미스 탐방대'에 참여해 소개해보자!



창업, 너도 해볼래?

작성자 | 남의정

삼육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많은 창업동아리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동아리는 누구나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로 활동하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창업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멘토링과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동아리 대표만 삼육대 학생이라면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도 지원이 가능하다. 삼육대 창업동아리 국제화 연구소에서는 비영어권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목적으로 Korean Life Medic을 운영중이다. 다음은 창업동아리 국제화연구소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창업동아리 참가자 인터뷰

창업동아리 국제화연구소

대표 오준재

(컴퓨터·메카트로닉스학부 소프트웨어전공 18학번)

●● 여러 선택지 중에서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창업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창업보다 사회봉사와 대외활동을 많이 하며 내가 사회에서 역할을 해나가고, 성장하는 느낌과 그 감정에 매료되어 살았습니다. 사랑의 몰래산타, 베이비박스, 지역아동센터 등 많은 봉사과 대외활동을 하며 경험을 키워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업을 생각한 시기는 학부 2학년이었습니다. 당시 학부 학업 뿐만 아닌 다양한 봉사활동과 대외활동을 했는데,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내가 만족할 만큼의 수익과 함께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방법을 고민했고 소프트웨어의 방법론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중 창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거시적인 시점에서는 사회 취약 계층이 단순히 복지대상자, 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회 속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소프트웨어적 방법론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안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직접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 복지가 아닌 창업에서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제화연구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화연구소의 창립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유학생 친구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유학생이랑 친구가 되어 제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동행하였습니다.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이 음식, 거주, 근로, 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해 알바를 하지 못한 친구, 자국의 음식에 향수가 있는 친구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 같이 다니던 유학생 친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팀을 창업하고 운영할 능력이 부족했음을 자각한 저는 창업공부와 컴퓨터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며 실력있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 다시 시작한 창업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 의료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인 이주민의 입장이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인성교육원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기업 인증까지, 내실과 속도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제화연구소의 사업 아이템인 KoreanLife_Medic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KoreanLife_Medic은 이주민, 특히 비영어권 이주민의 의료가이드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의원으로 외국인 의료안전의 생활화'와 '119신고의 간단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픽토그램과 영상통화 보호 대리자를 통해 외국인의 의원방문을 유도하고, 응급원터치를 통해 외국인의 119신고의 과정을 단축합니다.

●● 창업동아리로서 대학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본부에서



지원해주는 학생창업보육공간과 창업동아리 활동비, 우수한 멘토진 연계가 동아리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삼육대학교이기에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킹과 섬세한 멘토링은 소셜벤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됩니다.

●● 동아리 팀원을 뽑을 때 국제화연구소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 아닌 성장하는 혹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과 팀의 성장이 함께 된다면 아이팀의 성공은 언제든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팀원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팀원의 행동이 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중요시 합니다. 아이팀도 중요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나, 개인이 없다면 팀과 아이팀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성장”, “공동을 위한 타의”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 국제화연구소 대표로서 가장 뿌듯했을 때와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하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느낄 때입니다. 고객 대상 테스트를 통해 의사를 반영하고 수정하였을 때 고객의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과 노력이 의미 있을 때 가장 뿌듯하고, 팀원들이 고객과 서비스를 위해 진심을 다해 움직이는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 창업이나 창업동아리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창업은 쉽다, 어렵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치열하게 고민했는가, 얼마나 더 고객 중심으로 생각했는가에

따라 성공의 길이 나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스타트업은 나의 가설을 증명해가는 과정이 80%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그 팀에서 함께 고민하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본인의 생각을 가설화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설이 더욱 논리적이고 시장의 구조를 디커플링 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이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스타트업을 하는 후배분들 언제나 필요하실 때 일자리본부와 선배들을 찾아오시면 누구든 도와주실 것입니다. 팀이 아닌 개인이라도 성장하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땐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SU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나요?

작성자 | 양은솔

삼육대학교는 1906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금연·금주 캠퍼스를 지켜가고 있다. 금연 금주 클리닉은 국내 최초로 세워진 대학 부설 클리닉으로 모든 재학생들의 금연·금주 실천을 목표로 체계적인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U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SU 금연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 운영 내용

-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한 학기(총 13주) 동안 매주 금연 금주 클리닉에 방문해서 니코틴 검사를 진행하며, 한 학기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20만원의 금연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차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로 방학 중에도 스스로 금연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만원의 금연장학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1·2차 이후 3차로 그다음 학기(총 13주간)에도 금연 금주 클리닉에 방문해서 니코틴 검사를 진행하고 금연에 성공하면 20만원의 금연장학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SU 금연 프로그램은 약 1년 동안 금연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금연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참가하여 성공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연장학금은 총 50만 원으로, 금연과 장학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 본교 재학생 중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전자담배는 참여 불가)
- 13주 동안 매주 1회 니코틴 검사 가능자
- 금연 교육 참여 가능자(온라인)
- 금연장학금(건강증진장학금) 수혜 이력이 없는 자

3. 센터 위치

- 뉴스타트 연구동 1층 (금연 금주 클리닉)



참여 학생 인터뷰: 경영정보학과 김승년

●● SU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동기)는 무엇인가요?

평소 금연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처럼 갖고 있었지만 항상 다짐만 할 뿐 실천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장학금도 주신다 하니 SU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동기가 유발된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평생 동안 금연을 하겠다는 큰 다짐과 의지를 갖고 본 SU 금연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 SU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SU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의지가 오랜 기간 동안 끊기지 않았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원래였으면 금연을 이번처럼 길게 하지 못했을 텐데 학교에서 금연교육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셔서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 학과 동기인 친구와 함께 금연 프로그램에 도전하니 혼자 도전할 때 보다 더욱 큰 의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 '금연'이라는 긍정적인 목표에 도달하고자 서로 경쟁의식도 느끼게 되고 금연에 대한 대화도 나누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습니다.

●● SU 금연 프로그램을 하며 느낀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흡연이라는 것은 중독, 습관이 되어있어 금연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의 다짐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완전히 흡연 습관을 바꾸지 못하였던 것이 어려우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금연을 시도해 보니 이전보다는 확실히 흡연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 SU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SU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흡연자였던 제 입장에서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다함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긍정적 보상과 더불어 동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더 크게 불어 넣어준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누군가 SU 금연 프로그램 참가를 고민한다면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금연이라는 것은 큰 의지와 동기가 필요한데 SU 금연 프로그램이 그러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에 크게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걱정이 되는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참여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경험

& SU-PANEL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재학생 홍보단) 활동 소감



김예동 (경영정보학과 19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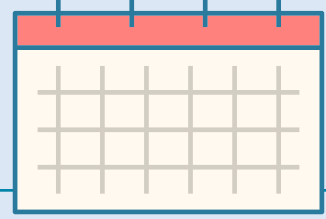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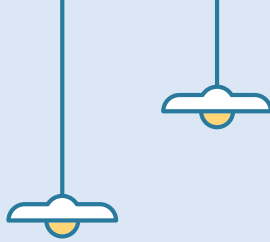
SU-PANEL 활동을 하며 삼육대학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나름대로 다양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접해보지 않았거나 혹은 아예 생소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삼육대학교는 2019년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었기에 19학번으로 입학한 저에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SU-PANEL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들과 인터뷰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소중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SU-PANEL 활동을 하며 웹소식지를 기획하다 보면 더욱 질 높고 생동감 있는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참여 학생을 인터뷰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표와 높은 의지를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보며, 주춧하던 제 의지도 돌을 수 있었습니다. 웹소식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완성도 있게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모두 작성한 뒤의 뿌듯함과 그 안의 모든 과정은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길 희망합니다.



조유아 (영어통번역전공 20학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혁신의 시작"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현 21세기에서 이뤄지는 모든 혁신은 기회와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은 교내 재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제공해줍니다.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앞선 경험을 통해 얻은 역량을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다음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Mindfit 적응역량검사', '나의 SU토리 성장 공모전', 그리고 '발표 공포증 극복을 위한 스피치 특강'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장점을 파악했고, 'Smith 탐방대', '학생참여 사회문제해결 포트폴리오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던 'SU-PANEL'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양한 학생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이들의 성장과정을 직접 들으며 '경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보낸 시간들은 학생들이 점차 진정한 혁신 인재로 거듭나는데 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내에는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내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남의정 (영어통번역전공 20학번)

2020학년도 2학기에 이어 2021학년도 2학기에도 SU-PANEL로 활동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SU-PANEL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점은 우리학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보고 이에 참여한 학우들을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몰랐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직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에 삼육토론대회 참가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학년도 1학기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웹소식지를 작성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다는 점도 뜻깊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우들이 읽는 웹소식지를 작성해 우리 학교의 여러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소감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혹시 SU-PANEL활동의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은솔 (경영정보학과 19학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삼육대학교 학우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업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학생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역량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학생들만의 개성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금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모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내에서도 여러 공모전과 경진대회, 공동체 활동, 특강, 세미나, 봉사 활동, 취업 동아리/멘토링, 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 학생의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본인의 역량을 증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SU-PANEL 활동을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노고와 열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총 2년 동안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웹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교내 홈페이지에 흔히 보여 당연하듯 무심코 지나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담당자분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바람에 따른 연구를 통해 각각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SU-PANEL 활동을 하며 웹소식지 제작을 위해 각 프로그램 담당자분과 학생분들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